

白龍洞窟 周邊의 人文 및 社會環境에 관한 研究

建國大 教授 洪 顯 哲

I. 서언

거주환경을 둘러싼 대도시권, 지방도시, 농·산·어촌등 각각의 地域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각 地域에 대한 地域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國家 전체속에서 각각의 地域이 갖고 있는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능의 정비방책이나 개발방향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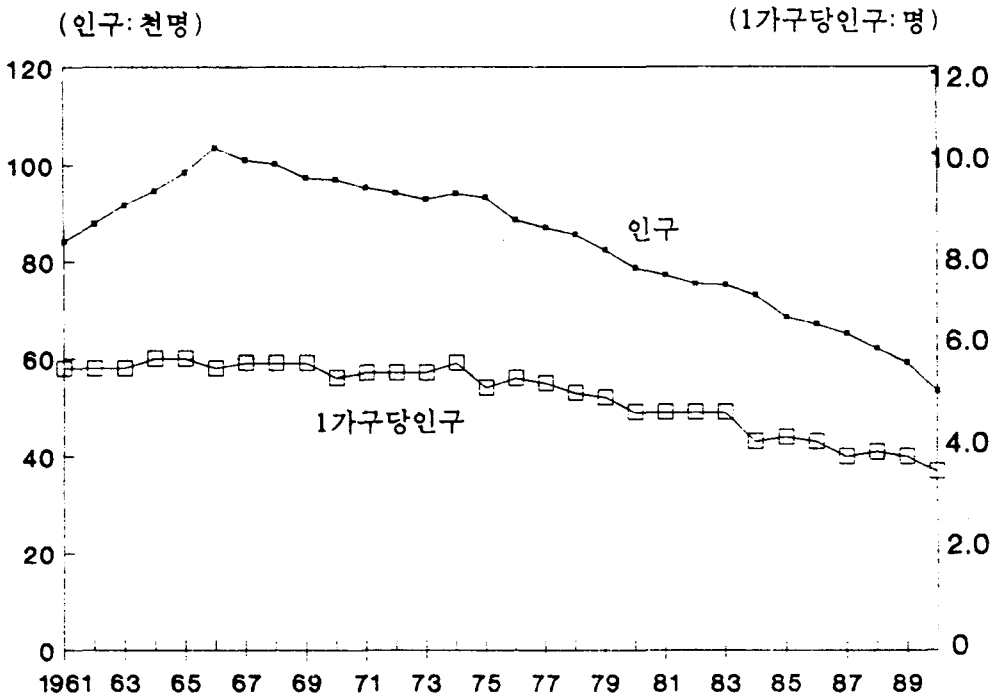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 아래, 영월댐이 건설됨에 따라 白龍洞窟 주변 地域의 거주환경은 매우 다르게 변화 될 것이다. 특히, 天然記念物 제260호인 白龍洞窟이 영월댐의 건설로 인해 수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洞窟과 그 洞窟의 주변 地域에 대한 각 분야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월댐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白龍洞窟 주변 地域의 人文·社會 環境을 분석하고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研究對象 地域은 白龍洞窟이 位置하고 있는 平昌郡을 중심으로 하여, 이 地域의 人文·社會的 環境, 즉 人口 및 聚落現況, 土地利用現況, 産業現況, 交通現況, 觀光 및 文化現況 등을 파악하였다.

II. 人口 및 聚落 環境

白龍洞窟이 위치하고 있는 平昌郡의 인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의 平昌郡의 인구는 53,257명이고, 이중 남자가 51.1%, 여자가 48.9%로 남초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平昌郡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6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1967년의 103,519명으로 피크를 이룬 후 1990년 현재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5년 이후의 인구 감소현상은 극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현상과 마찬가지로 平昌郡의 가구수도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내어 1990년 현재에는 14,426가구로 1961년 이후 최소 가구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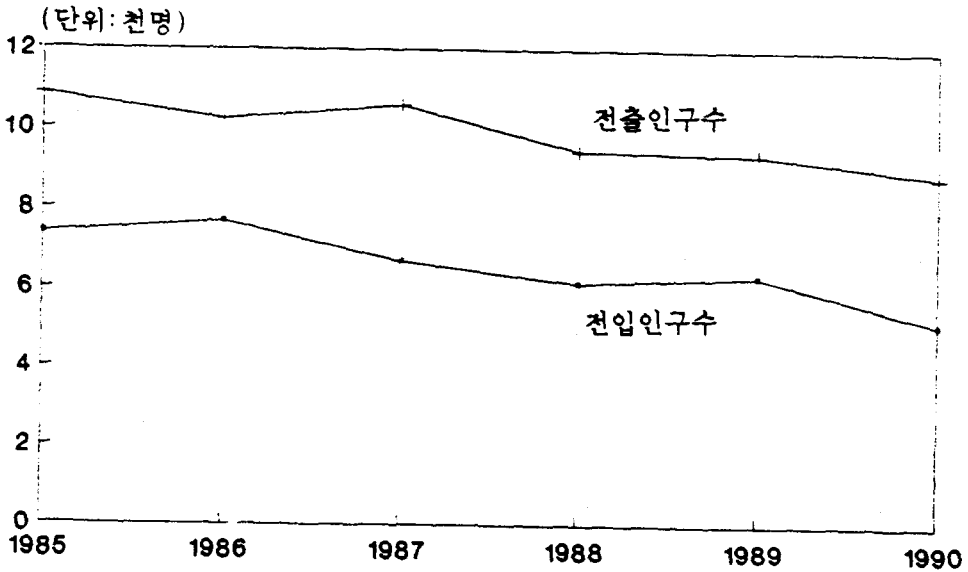
(그림 1) 평창군의 인구추이

또한 1가구당 인구수를 보면 1970년의 5.6인에서 1980년의 4.9인, 1990년의 3.7인으로 10년동안에 한가구당 약 1인 정도씩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은 자연적 減少현상과 사회적 減少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平昌郡의 경우, 자연적현상을 보여주는 출생과 사망인구수를 보

면, 출생인구수가 사망인구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平昌郡의 인구 감소현상은 사회적 현상인 전입과 전출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소 요인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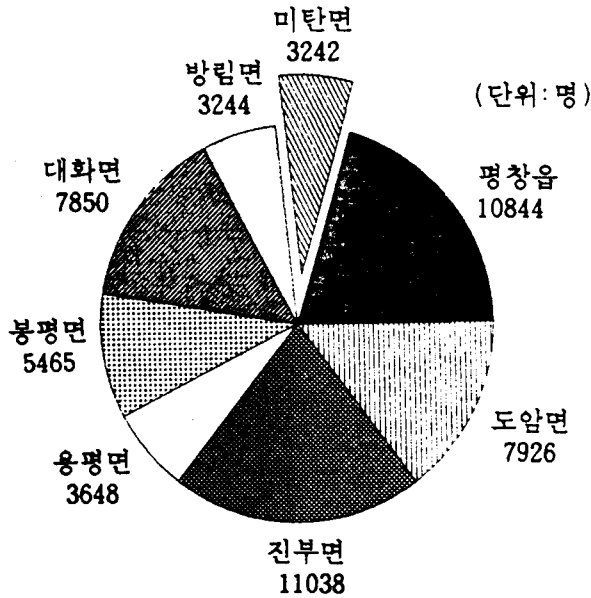


(그림 2) 평창군 인구이동 변화

平昌郡 내에서의 읍면별 인구수의 분포를 보면, 珍富面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군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平昌邑으로 전체군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白龍洞窟이 위치하고 있는 美灘面은 3,242명으로 가장 작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군의 6%에 불과하다(그림 3). 이러한 인구의 분포는 각 읍면의 면적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인구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군전체의 인구밀도 36.5인/km²에 비하여 平昌邑의 인구밀도는 67.1인/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앞에서 언급했던 군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珍

富面의 인구밀도는 33.3인/km²로 군평균 인구밀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장 인구가 적은 美灘面의 경우 29.6인/km²로 군 평균값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평창군 읍면별 인구수(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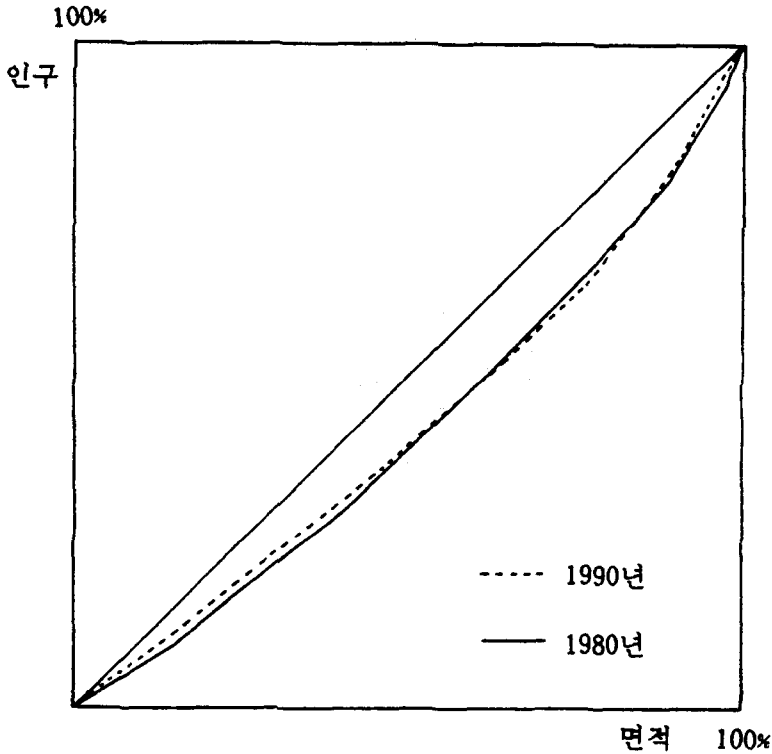
이러한 읍면별의 면적 분포에 대한 인구의 분포가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한 척도로서 로렌즈곡선(Lorenz Curve)을 들 수 있다(그림 4).

그림의 대각선은 완전평등선을 의미하며 이 대각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1980년도의 로렌즈곡선과 1990년도의 로렌즈곡선의 형태로 보아 1990년에는 平昌郡 읍면별 면적에 대한 인구의 분포가 1980년에 비하여 완전평등선에 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보다는 1990년에 면적에 대

한 인구분포가 더욱 불평등해졌음을 말해준다.

두 시기 모두 여전히 완전평등선으로 부터 떨어져 있다. 이것은 平昌郡이 다른 地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것과 白龍洞窟이 위치하고 있는 美灘面과 같이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면의 경우는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그림 4) 평창군 읍면별 면적과 인구의 로렌즈곡선

원래 영월댐이 건설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水沒되는 부락들이 영월군의 영월읍과 정선군의 신동읍의 많은 부락들이 포함되고 있기는 하나 이 항목에서는 平昌郡 美灘面 馬河里에 위치하고 있는 白龍洞窟에 근접하고 있는 부락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실제로 이 馬河里의 문희부락은 현재 3가구만이 남아 살고있을 뿐이다. 작년도까지만 하여도 이 문희부락에는 6개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웃에 있는 뇌른부락에도 2개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交通의 불편 등으로 노사 계절에만 이곳에 들어와 일을하고 그 밖의 계절에는 읍내에 나가 살고있는 실정이다.

이 白龍洞窟의 밑을 흐르고 있는 南漢江 上流支流의 하나인 東江은 洞窟 앞에서는 커다란 곡류현상으로 사행하고 있는데 강건너 河床地面 윗쪽에는 겨우 1개 가구 2동의 건물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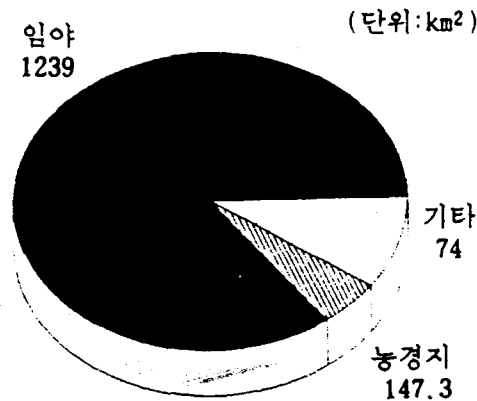
따라서 白龍洞窟 주변의 人文現況은 特記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본다.

이들 고립가옥으로 산재하고 있는 주민은 그모두가 발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土地利用 現況

平昌郡내의 토지종목별 현황을 관찰하여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 1,460.4km²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林野로 전 郡의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농경지로 총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농경지를 전과 답으로 구분하여 보면, 밭은 122.3km²로 농경지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의 면적은 전면적의 6%만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기타 면적 중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천과 도로이다. 하천은 29.6km²로 전체의 2%를 차지하며, 도로는 12.0km²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평창군의 토지이용(1990년)

美灘面 내의 토지이용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임야가 86.6%, 농경지가 9.7%로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지 중에서는 밭이 9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의 전체 농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 83% 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군에 대한 각 토지이용별 구성비를 보면, 美灘面의 총면적은 전군 면적의 7.5%에 불과하여 다른 읍면에 비해 낮다.

임야, 밭, 도로 등도 7%~8%로 全郡에 대한 비율이 총면적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논이나 하천의 비율은 4%를 넘지 않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지형적으로 대하천의 발달이 부족하여 논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표 1).

이러한 비율은 임야, 논, 밭 등의 모든 면적에 있어서도 다른 읍면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부담액을 보더라도 美灘面이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平昌郡내의 낙후된 地域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 미탄면의 토지이용

구분	미탄면 (km ²)	면구성비 (%)	군면적 (km ²)	비율 미탄면/군
총면적	109.5	100%	1460.4	7.5%
임야	94.8	86.6%	1238.9	7.7%
전	9.8	8.9%	122.3	8.0%
답	0.8	0.7%	25.1	3.2%
하천	1.1	1.0%	29.6	3.7%
도로	0.9	0.8%	12.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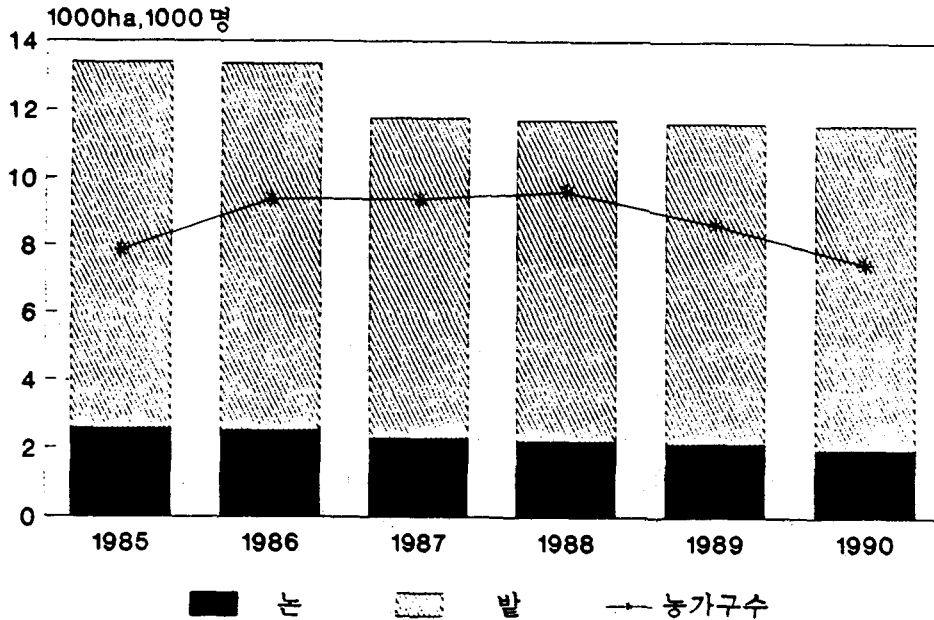
IV. 産業現況

1. 農業

먼저 平昌郡의 경지면적의 변화와 이와 관련하여 농가구수의 변화를 고찰하여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경지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밭의 면적 감소가 확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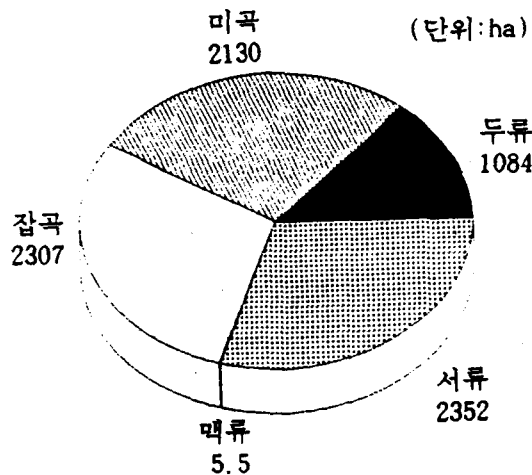
이에 관련된 농가구수의 변화를 보면, 1985년에서 1988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平昌郡의 식량작물의 식부면적을 고찰해 보면,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 실태를 알 수 있다. 앞의 토지이용 상태에서도 고찰 한 바와 같이 平昌郡의 농경지의 대부분이 밭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산간地域에 속하는 平昌郡의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6) 농가구수 및 경지면적의 변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곡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맥류 등은 모두 밭농사 재배작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가장 넓은 식부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서류와 잡곡이다. 그러나 생산량을 보면, 잡곡이 13,588M/T로



(그림 7) 평창군 식량작물의 식부면적(1990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곡으로 9,116M/T, 서류가 7,076M/T의 순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平昌郡은 밭농사 위주의 농업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식량작물 이외 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채소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면적 3,697.3ha, 총생산량 114,890M/T이다. 채소류중에서는 특히 무우와 배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추와 당근이 비교적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특용작물 중에서는 참깨와 들깨가 비교적 많은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과실류 중에서는 사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1990년) (단위: ha, kg, M/T)

구 분	식량작물	미곡	잡곡	두류	서류	채소류	무우	배추
총면적	7878	2130	2307	1084	2352	3697	703	1789
10ha당	398	428	589	148	300	-	-	4246
생산량	31373	9116	13588	1582	7076	114890	22668	75969

구 분	양배추	고추	당근	특용작물	참깨	들깨	과실류(사과)
총면적	109	730	128	319	95	204	2.3
10ha당	3800	204	1800	-	57	73	700.0
생산량	4127	1438	2309	-	55	15	16.1

2. 畜産

平昌郡의 축잠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사육호수 면에서 본다면, 韓牛, 닭, 꿀벌, 산양 등의 순서로 사육호수가 많다. 한편, 마리수의 경우는 닭이 가장 많고, 韓牛, 꿀벌, 젖소의 순이다. 따라서 平昌郡의 축잠현황은 韓牛, 닭, 꿀벌, 젖소, 산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찰 할 수 있다. 특히 韓牛와 젖소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韓牛는 3,647호에 7,864마리로 사육가구 1호당 2.1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의 경우는 105호 3472마리로 사육가구 1호당 33.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韓牛의 경우는 농경지의 경작 등의 농사를 위한 노동력으로서의 이용형태를 말해 주는 것이고, 젖소의 경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의 형태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밖의 닭이나 산양의 경우도 가구당 사육마리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자금 자족 형태가 아닌 영리목적의 축잠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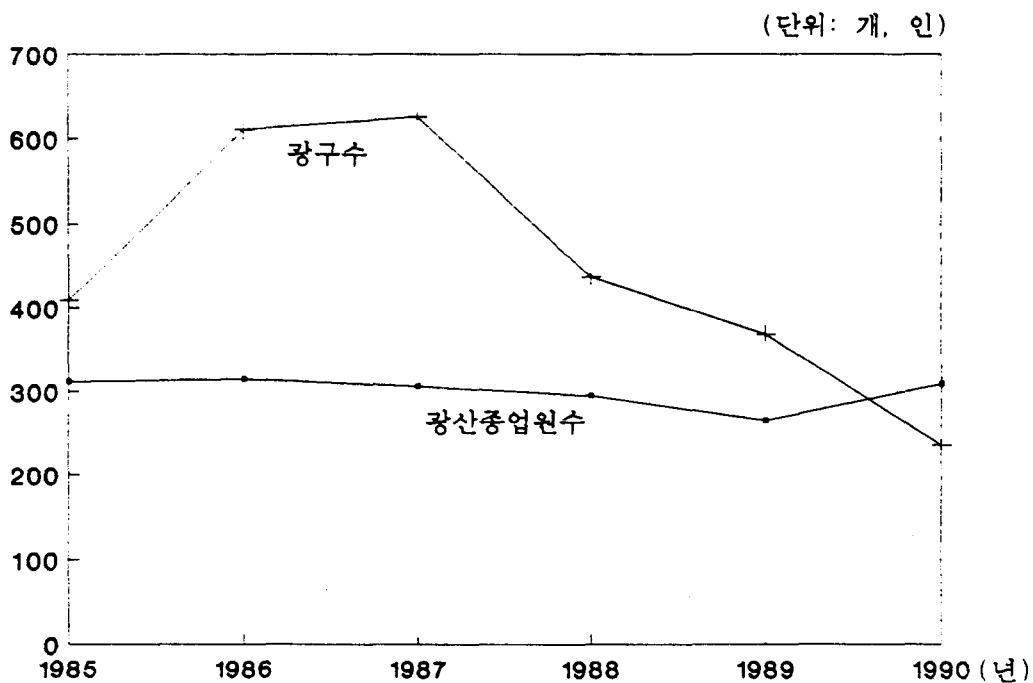
美灘面의 축잠현황을 보면, 韓牛, 산양, 토끼, 닭, 꿀벌 등이 사육호수 혹은 사육 마리수에 있어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육가구 1호당 마리수에서 가장 높은 마리수를 보이는 것은 토끼로 1호당 71마리이다. 이것은 마리수에서 볼 때, 군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어 군내에서 가장 많은 토끼를 사육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산양의 경우도 사육호수에 있어서는 전군의 21%를 차지하고 마리수에 있어서는 38.2%를 차지하고 있어 토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과는 반대로 젖소나 돼지의 경우는 전혀 사육되고 있지 않다.

(표 3) 주요 축산 현황(1990)

구 분	평창군		미탄면		구성비(미탄/군)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한우	3647	7864	260	497	7.1%	6.3%
젖소	105	3472	-	-	0.0%	0.0%
돼지	25	495	-	-	0.0%	0.0%
사슴	44	358	3	21	6.8%	5.9%
산양	195	1539	41	588	21.0%	38.2%
토끼	29	732	8	568	27.6%	77.6%
닭	633	22757	59	523	9.3%	2.3%
꿀벌	391	3925	66	329	16.9%	8.4%

3. 鑛工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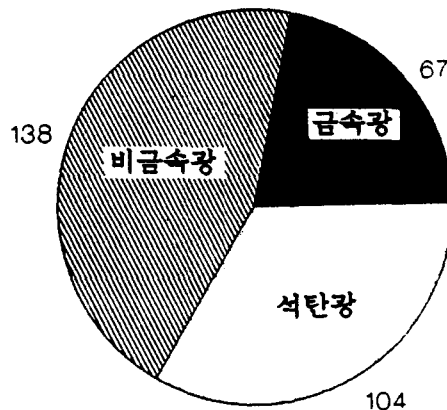
산간地域으로 구성되어 있는 平昌郡의 주요 산업은 鑛山業이다.



(그림 8) 평창군 광구수 및 종업원수의 변화

平昌郡의 광공업에 대한 광구수 및 종업원수의 변화를 보면, 1985년 광구수는 311개소에서 1989년에는 265개소로 감소하였다가 1990년에는 비금속광과 석탄광의 증가로 300선을 다시 넘게 되었다. 이러한 광구수의 증가와는 달리 광산 종업원수는 1987년의 626명을 피크로 계속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1990년 현재 236명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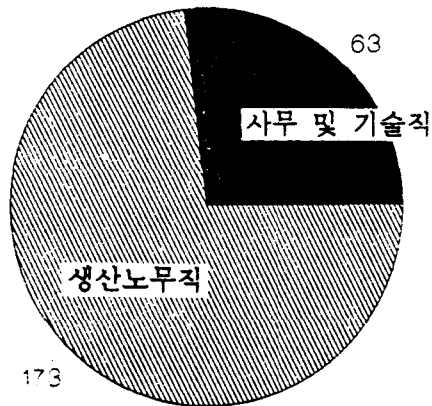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현재의 광종별 광구수는 비금속광이 138개소로 가장 많고 금속광이 67개소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9) 평창군 광종별 광구수(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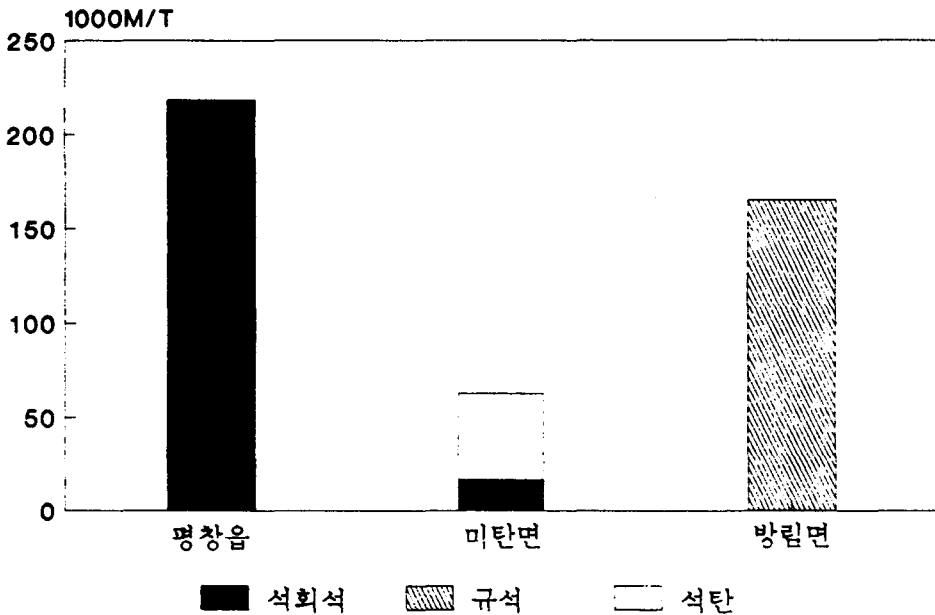
광산 종업원수의 직무구분을 분류하여보면, 생산노무직이 173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평昌郡의 광공업은 비금속광과 석탄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광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광물로는 석회석, 규석, 석탄 등이다. 이것의 생산 실적을 읍면별로 고찰하여 보면, 석회석의 경우는 주로 평昌邑에서, 규석은 주로 芳林面에서, 美灘面에서는 석탄과 석회석이 생산되고 있



(그림 10) 평창군 광산 종업원수의 직무구분(1990년)

다(그림 11). 이상에서 보면, 평昌郡에서의 광산물의 생산은 地域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주로 평昌邑, 美灘面, 芳林面에서의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읍면별 광산물 실적(1990년)

V. 交通 및 文化 環境

1. 交通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모터리제이션(Moterization)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平昌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平昌郡의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면 자동차의 총등록대수는 1985년의 1,148대에서 1990년의 2,926대로 5년 사이에 2배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볼 때, 관용의 경우는 1987년을 제외하면, 매년 10%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영업용은 1989년까지는 10%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3.7%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가용의 경우, 1987년에서 1989년까지는 25%-30%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1990년에는 15.3%로 그 증가가 다소 둔화되었다.

(표 4)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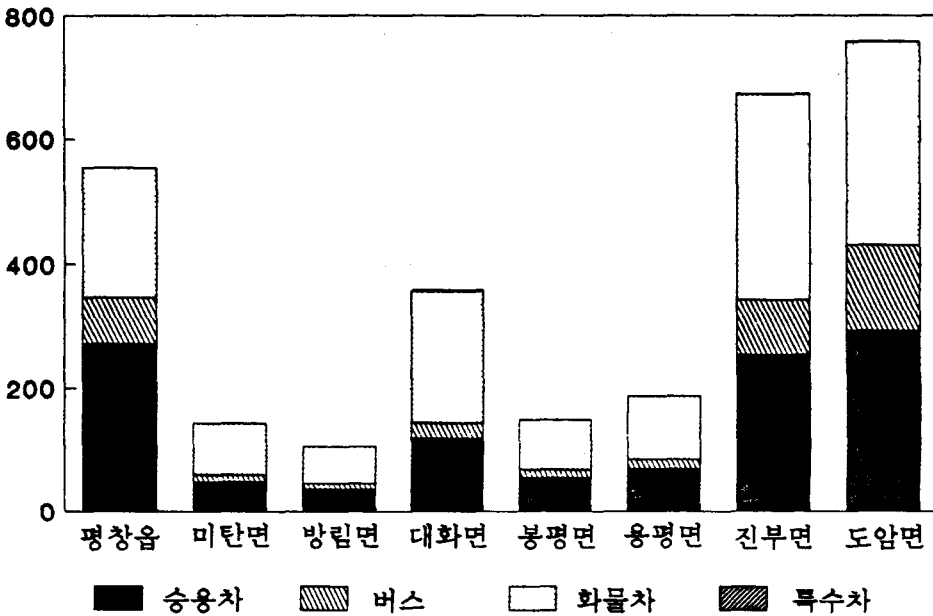
년 도	총 계	관 용	자 가 용	영 업 용
1985	1148	66	984	188
1986	1338(16.6)	72(9.1)	1050(6.7)	213(13.3)
1987	1630(21.8)	98(36.1)	1309(24.7)	223(4.7)
1988	2045(25.5)	99(1.0)	1688(29.0)	258(15.7)
1989	2591(26.7)	103(4.0)	2215(31.2)	273(5.8)
1990	2926(12.9)	110(6.8)	2553(15.3)	263(-3.7)

* 괄호안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전체적으로보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은 1989년이후 다소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平昌郡도 전국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가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하는 모터리제이션 현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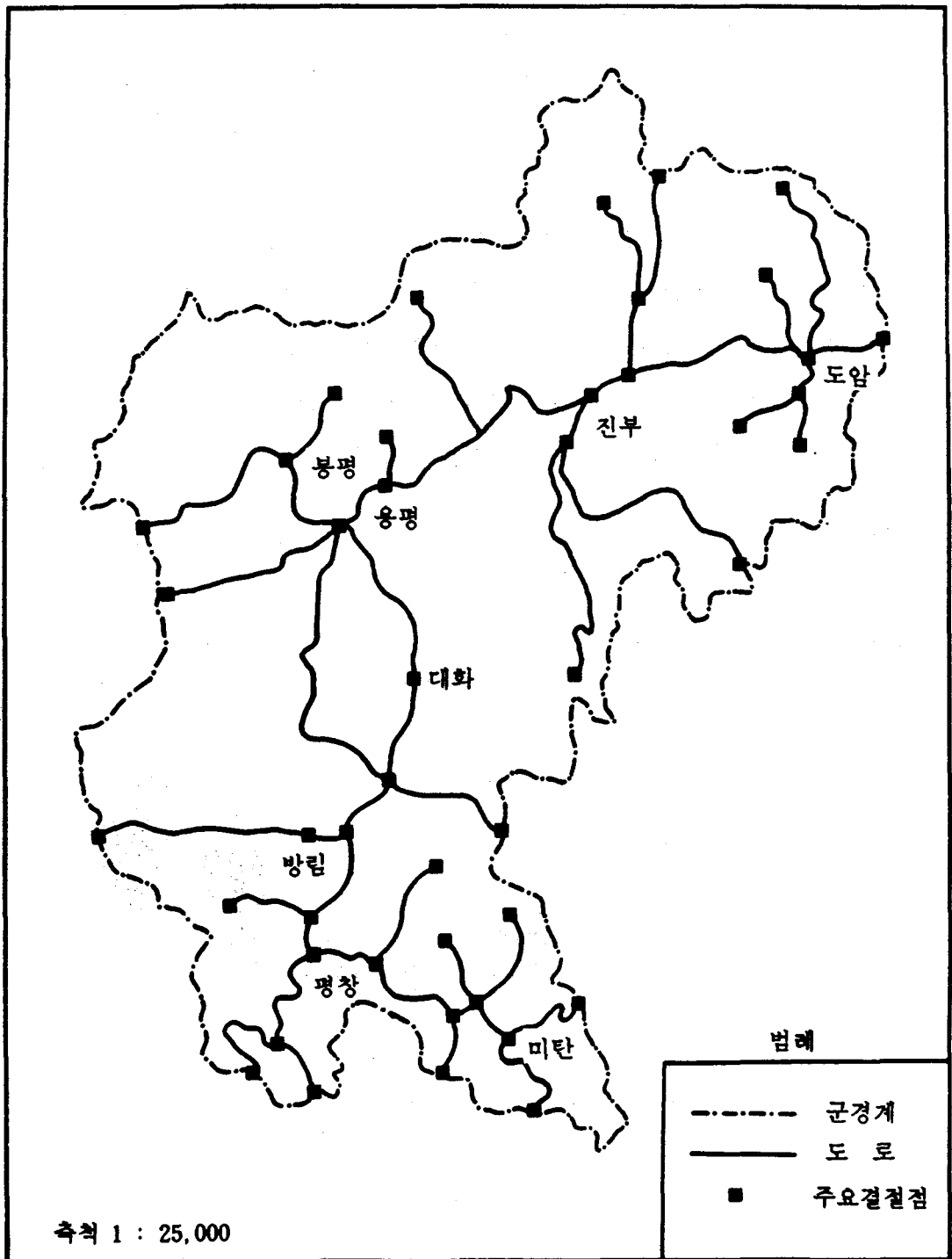
한편 그림 12의 읍면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道岩面으로 759대에 달하며, 그 다음이 珍富面 673대 平昌邑 554대이다. 白龍洞窟이 위치하는 美灘面은 142대로 다른 읍면에 비하여 적다. 가장 많은 등록대수를 나타내는 것은 승용차인데 총계 1142대중 자가용승용차는 997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대)



(그림 12) 읍면별 자동차 등록현황(1990년)

도로현황을 보면, 군내의 도로연장은 378.3km이며, 이 중 고속도로는 52km로 13.7%에 불과하다. 일반국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체의 41.4%이며, 지방도가 18.6%이다. 포장율은 62.0%로 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포



(그림 13) 평창군의 주요 도로 현황

장울을 보이고 있다. 도로의 연장길이에 있어서 美灘面의 경우, 총연장 33.5km로 군내에서 가장 적은 연장길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장율에 있어서는 72.1 %로 군의 평균포장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로의 발달은 미약하나 도로정비면에 있어서는 타地域보다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군내를 통과하고 있는 高速道路는 眞鳥를 기점으로 横溪를 종점으로 하는 横東高速道路가 있고, 國道로는 6번, 31번, 42번 國道등 3개노선이 군내를 통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5개노선의 地方道와 9개노선의 郡道가 있다.

그림 13은 淸州郡 내의 도로발달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는 시군도가 상으로 군도, 지방도, 일반국도, 고속도로가 분석대상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각 결점점은 상기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로의 발달상태를 보면, Planar Graph상태에서의 Alpha지수 $\alpha=0.115$ 이고, Gamma지수 $\gamma=0.341$ 로 나타났다. Alpha지수와 Gamma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alpha = (m-n+p)/(2n-5) = (n-2)/(2n-5) \quad \text{--- (1)}$$

$$\gamma = m/3(n-2) = (2n-3)/3(n-2) \quad \text{--- (2)}$$

여기서 $m = 2n-3$ 의 관계가 있으며, 이때의 m 은 선의 수, n 은 점의 수, p 는 성분의 수를 말한다.

따라서 淸州郡의 도로 발달상태는 Spinal형(목형)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상태에서 보더라도 8개 읍면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각각 나무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읍 면의 중심지를 통하여 도로가 방사선 상태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각읍면 간의 도로연결 상태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珍富面에서 美灘面으로 가려고 하면, 龍平, 大和, 新芳林, 平昌을 경유하여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각 도로의 기능을 동일 수준하에서 판단 한 것이고, 도로의 간선과 지선의 구분하에서 평가한다면, 嶺東高速道路가 통과하고 있는 長平, 珍富, 道岩 등은 서울, 京畿道, 江陵地域으로 부터의 접근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平昌군은 掟川, 寧越 등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旌善으로 부터는 美灘面이 가장 접근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地域들은 타地域에서 平昌郡으로 들어오는 關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地域들은 반대로 平昌郡에서 타地域으로 나아가는 주요 結節點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白龍洞窟로의 교통은 매우 불편하다. 일반국도 42번에서 분기된 琪花개울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지방도를 이용하여 美灘面에서 동강과 합류하는 馬河里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馬河里부터 白龍洞窟 아래 하천까지는 4.25km는 도보(소요시간 약 1시간반 정도)로 하천을 따라 이동하여야 하며, 하천에서 洞窟입구까지는 나룻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觀光 및 文化

平昌郡 내에 분포하는 주요 관광지를 보면, 珍富面에 五臺山 國立公園과 방아다리藥水, 道岩面에 龍平綜合休養地, 龍坪面에 李承福反共紀念館, 天然記念物 제 260호인 美灘面의 白龍洞窟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白龍洞窟을 제외하면, 모두 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이들은 嶺東高速道路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사찰이나 명승지가 곳곳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주요사찰은 대부분이 五臺山 國立公園 내에 위치하고 있고, 명승지도 대부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4). 관광객수를 보면, 五臺山이 596,860명으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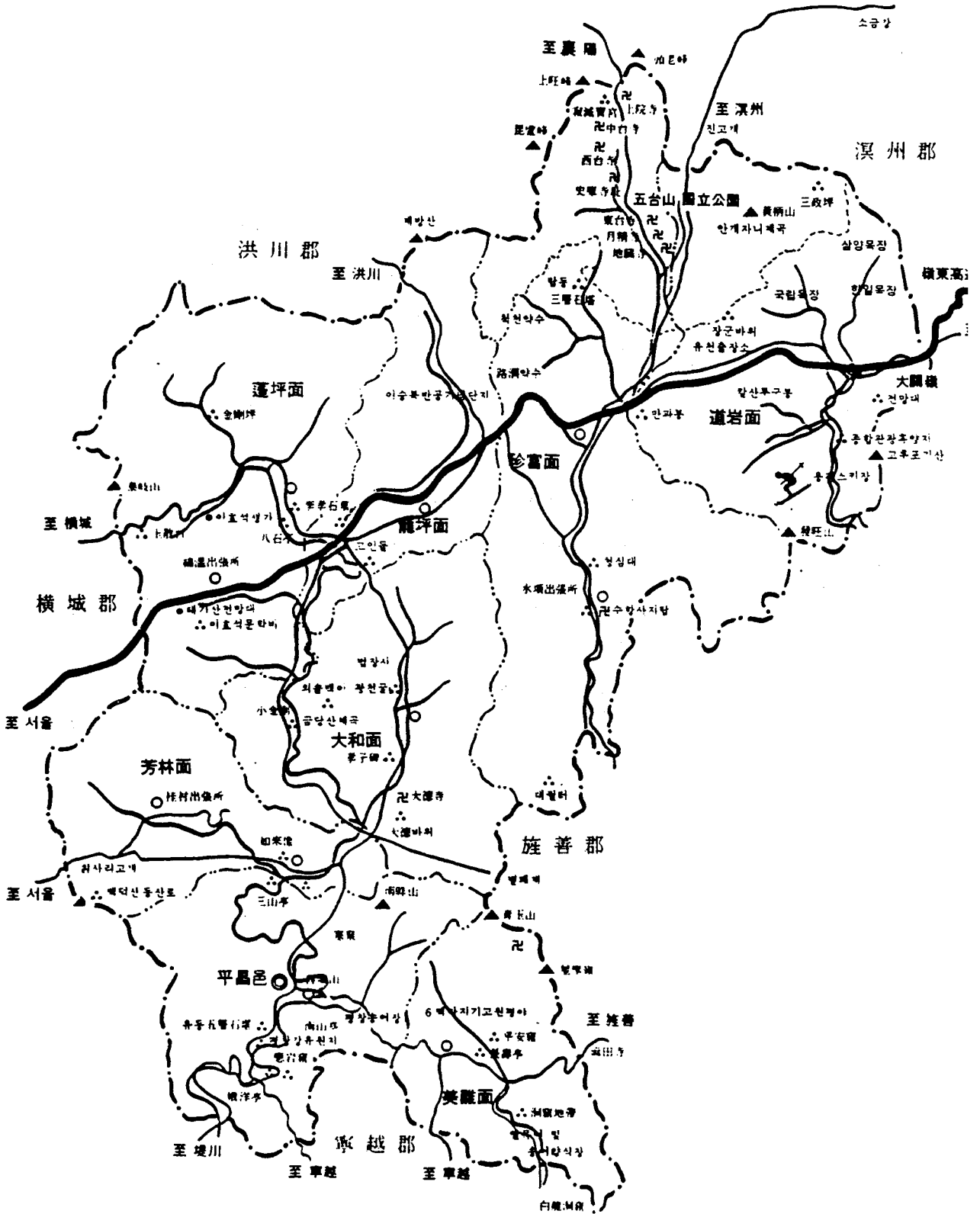
많고, 李承福 反共紀念館이 590,995명, 龍平綜合休養地가 363,439명으로 군내의 관광객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한편, 이러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숙박을 수용가능한 숙박업소의 실태를 보면, 호텔 2개소, 여관 27개소, 여인숙 34개소 등 합계 63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그 분포를 보면, 관광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진부면과 도암면에 각각 16개소, 17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군내에 2개뿐인 호텔은 道岩面의 龍平綜合休養地에 위치한다. 이것으로 보아, 五臺山 國立公園과 龍平綜合休養地가 平昌郡의 관광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美灘面의 白龍洞窟의 경우는 天然紀念物 제 260호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끌지 못하고 숙박시설이 전혀 없다.

문화재를 보면 모두 20점에 달한다. 그 중 指定文化財가 9점, 地方文化財가 11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國寶가 3점, 寶物이 3점, 史蹟이 1점, 天然紀念物 1점, 地方有形文化財 6점, 地方紀念物 1점, 文化財資料 4점, 重要民俗資料 1점 등이다. 이것을 읍면별 분포상태를 보면, 국보와 보물급의 모든 문화재를 비롯한 14점의 문화재가 진부면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진부면 내에 五臺山國立公園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급 문화재로는 제36호 上院寺 銅鐘, 제 48호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제221호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이 있고, 보물급 문화재는 제139호 月精寺 石造菩薩座像, 제140호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제793호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 등이다. 이들 외에 史蹟 제 37호로 五臺山史庫址, 天然紀念物 제260호로 白龍洞窟가 있다.

이들의 國寶와 寶物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문화재의 소재지는 珍富面 東山里로 五臺山 國立公園 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14) 평창군의 관광지 분포

VI. 맺음말

이상 白龍洞窟 周邊地域에 대한 인문 및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평창군의 인구, 가구수, 1가구당인구 등은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은 자연적 감소현상보다 사회적 감소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읍면별 면적 분포에 대한 인구수의 분포는 1980년도에 비하여 1990년에 그 불평등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평창군의 토지종목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종목은 임야이고 그 다음이 농경지이다. 이 농경지의 대부분은 밭이 차지하고 있다.
3. 토지현황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산업현황을 보아도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성을 갖고 있다. 한편, 광업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4.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1985년이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도로현황을 보면, 포장율에 있어서 전국의 포장율에 비하여 낮다.
5. 관광 및 문화자원의 경우, 진부면의 오대사 국립공원에 편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地域的 불균등 현상이 더욱 심하다.

< 참고 문헌 >

平昌郡, 1990, 平昌年鑑.

平昌文化院, 1988, 美灘面誌.

平昌郡, 1991, 평창군통계연보.

金相勳, 1977, “大清 댐 建設에 따른 觀光開發 研究”. 觀光學, 1.

金正平, 1992, “한국의 관광자원개발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林漢洙 外5人, 1992, 觀光地理: 韓國篇, 白山出版社.
- 趙東奎, 1988, 人文地理調查法, 教學研究社.
- 洪慶姬, 1987, 都市·村落調查法, 法文社.
- 洪始煥, 1990, 韓國洞窟大觀, 三柱出版社.
- 奥野隆史·高森 寛, 1976, 点と線の世界: ネットワーク分析, 三共科學選書.
- 奥野隆史, 1977, 計量地理學の基礎, 大明堂.
- 木内信藏, 1967, 都市·村落地理學, 朝倉書店.
- 除野信道, 1975, 觀光社會經濟學, 古今書院.
- Berge, C., 1958, Theorie des graphes et ses applications, Dunod, Paris(Doig, A. trans, 1962, Theory of Graphs and Its Applications, Methuen, London).